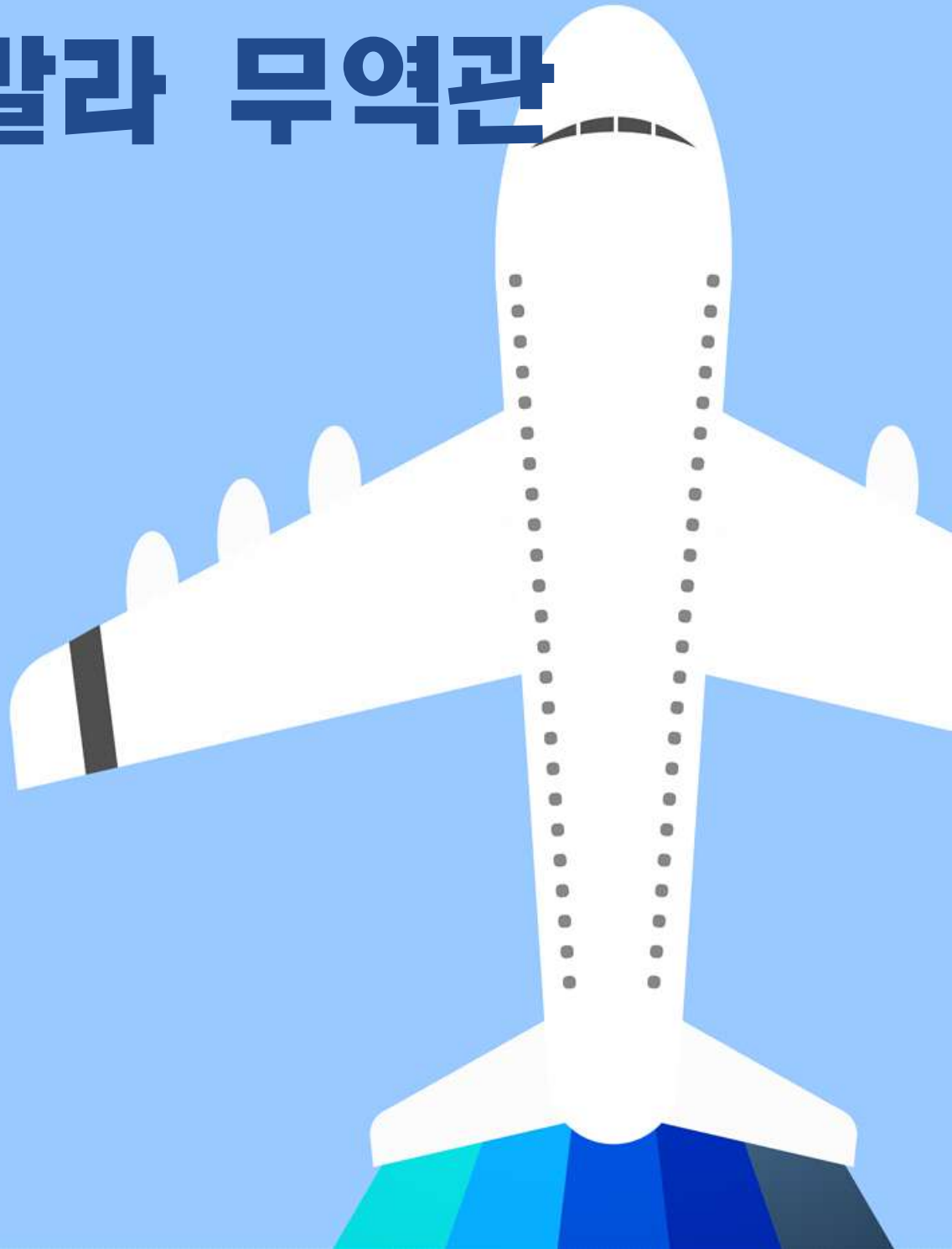


2022 해외출장 가이드

과테말라

과테말라 무역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과테말라 국가개황	1
II. 과테말라 경제 및 교역동향	7
III. 한국과의 교역동향	11
IV. 현지 체류정보	14
V. 상담시 참고사항	25

I. 과테말라 국가개황

국 가 명	과테말라공화국(República de Guatemala)
위 치	중미북부(북쪽으로는 멕시코, 남쪽으로는 엘살바도르와 접경)
면 적	108,889km ² (내수면 460km ² 포함) * 남한(100,295km ²)과 거의 유사
기 후	아열대성(수도 과테말라시티의 경우 1,500m 고산지대로 연평균 20~22°C의 상준 기후 형성)
수 도	과테말라시티(Ciudad de Guatemala)
인 구	1,710만 명
주요도시 (인 구)	과테말라시티(92만명, 수도권 357만명), 비야누에바(43만), 믹스코(47만), 꼬반(21만), 케찰테낭고(18만), 에스킨톨라(16만) 등
민 족	라디노(혼혈 56%), 마야(42%), 기타(가리푸나, 신카, 외국인 등 2%)
언 어	스페인어(기타 약 23개의 토착 언어 존재)
종 교	가톨릭(70%), 기독교(30%), 기타 토착 종교 등
건 국 일	1821년 9월 15일(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Alejandro Giammattei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20.1.14. 취임)
명목 GDP*	845억US\$
실질경제성장률*	4.5%('22년 전망)
1인당GDP*	명목: 4,603US\$ ('20년)
실 업 율	1.8%('1년) (과테말라통계청 '21 조회기준)
물가지수*	3%('22년)
화폐단위	Quetzal(Q/케찰)
환 율	1US\$ = 7.67Q. ('22.4.6 과테말라중앙은행 기준환율)
외환보유고*	204억US\$ ('21년 전망)
산업구조	도소매업(19.2%), 제조업(13.8%), 농림수산업(9.4%), 부동산(8.3%), 건설(5.2%), 교육(4.7%), 공공행정 및 국방 등(4.3%) 순(과테말라중앙은행 '20. 9. 기준)
교역규모	(수출) 149억US\$ / (수입) 221억US\$ ('21년)
대 한 교역규모	(한->과테말라) 228백만US\$('21년, FOB기준) (과테말라->한) 121백만US\$('21년,)

□ 과테말라 전도(全圖)



1992 MAGELLAN Geographix/S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 과테말라 주요 현안

- 과테말라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 주도하의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 방역을 실시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2022년 5월에는 실외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함. 공식적인 보건부 통계로 신호등 초록색(위험주의보 하)으로 변경된 지역이 생겨나고 있음
- 과테말라는 원자재, 유가 가격 상승에 따른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의 영향과 물류비용 상승에 따라 수입 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 완화 조치로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음. 2022년에는 인프라 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 가족 송금 등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이는 경제 회복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2022년에는 4.1%의 GDP 성장이 예상함
- 과테말라 중앙은행장 Sergio Recinos는 2022년 제조, 건설, 상업, 운동 부분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중앙은행은 방역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생산 증가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GDP가 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2021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2%, 수입은 44% 증가했으며, 시중은행 대출은 11월 18일 자 기준 11.13% 증가했음. 과테말라 소비의 원동력이 되는 가족 송금은 15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11월 기준 전년대비 34%가 증가함. 과테말라의 인구의 약 40%는 해외이민자의 가족 송금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소비 대부분을 가족 송금에 의존하고 있고, 송금액은 GDP의 13%를 차지하는 과테말라 주요 외화 획득원임.
- 국제 유가 및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임. 작년 대비 38.1% 급증한 가운데 수출품은 농산물(커피, 바나나, 카르다뎀, 설탕, 팜유 등)과 의류이나 농산물 수출이 점차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로 미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멕시코 등 인근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로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수입품은 에너지(석유·석탄·가스), 자동차 및 운송 수단 및 플라스틱·봉제 관련 원부자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과테말라 국가경쟁력위원회(Pronacom)에 의하면, 2021년 8월까지 과테말라에 투자된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8.5억 달러로, 에너지, 제조업, 식품업을 비롯해 섬유분야의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3,2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함. 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과테말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편리한 시장 접근성이 글로벌 투자기업의 진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됨. 특히, 최근 섬유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한 조업환경,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으로의 투자 확대뿐 아니라 중미 지역으로의 니어 쇼어링 및 미국 경기 회복으로 주문이 늘어나 호조를 이어가며 투자를 늘려가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

□ 과테말라 향후 경제 전망

- 과테말라는 20년 기준 1,800만 명의 인구, GDP 776억 달러로 중미에서는 외부 충격에 안정적인 국가로 평가받음.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20년 GDP는 -1.5% 역성장하였으나, 21년은 5.1%를 기록함. COVID19 백신 접종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이는 경제 회복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22년 GDP는 4.1%를 예상하고 있음
- 과테말라 비료 가격은 21년 초 대비 25%~50%로 인상되었으며, 운임 비용,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인상과 석탄 부족에 따른 중국의 전력난, 미국 내 허리케인 아이다 발생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수급에 따라 섬유산업 외 제조업의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해상 화물 비용 증가에 따라 22년 수입업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정부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로 인해 투자를 위해 사용되지 못하는 국고도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전망함. 21년 월별 최저임금은 비농업 2825.10케찰(362.19달러), 농업 2742.3케찰(351.59달러), 수출 및 마킬라 2581.77케찰(331달러)이며 과테말라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률, 국가 생산성, 인플레이션 등 주요 경제 수치를 반영 시 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4.26~7.26%가 적절하다고 분석함
- 과테말라는 2018년 2월 한-중미 FTA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중미 내 유일한 국가로 가입이 중단되어 있음. 과테말라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중미 경제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한국과 중미 회원국 간의 과테말라 FTA 추가 가입에 대한 동의가 선결된 후 한-중미FTA에 서명하도록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협조를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와 중미통합체제(SICA)에 요청함
- 중미수출연합회(FECAEXCA)는 중미 지역의 해상 화물 운임과 컨테이너 임대 비용이 폭등했다고 보고함, 20년 9월 컨테이너의 1대당 주당 운임은 \$1,200-\$14,00이었으나 10월 기준 \$10,996까지 상승해 있으며, 특정 노선은 \$4,000에서 \$20,000까지 상승함. 과테말라 선사 협회는 중미지역의 해상 운송 비중은 1년 안에 운임 가격이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1년 외국인 투자 유치는 약 12억 달러로 75.6%는 재투자, 24.4%는 신규 투자로 집계되었다. 미국을 대표하는 11개의 투자 및 재투자 프로젝트가 등록되었는데 제조업, 식음료, 에너지, 섬유, IT,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약 1.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관목할 만한 외국인 투자로는 MILICOM사의 통신사 Tgio 지분 인수 2,200만 달러, 콜센터 Telus사의 신규투자 2,840만 달러, 스페인 제약사 Faes Farma의 인수 3천만 달러, 스페인 섬유회사 Nextil Group의 4천만 달러 투자 등이 있다.

과테말라는 공공사업(도로, 공항, 항구, 병원 등 인프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중 주요 인프라 사업인 5개 병원 인프라 개선 사업은(3개 신축, 2개 증축) 중미 경제통합은행(BCIE)에서 투자하고 있으며 1억 9,300만 달러 규모로, 한국 수출입 은행 협조 융자 기금이 7,900만 달러가 투입돼 있다.

21년 IMF조사단은 과테말라를 방문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진단했다. 또한 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해 불법 이민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원자재 수입국인 과테말라는 농업분야에 가장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물류비용의 증가로 인해 식품 산업 분야에 구매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함

- 중미 이민 문제 관련해서 자마떼이 대통령은 제4차 포괄적 난민 대응 프레임워크(CRRF)회의에서 불법 이민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일자리 창출, 기초 서비스 개선 등의 필요성을 언급함

II. 과테말라 경제 및 교역동향

□ 시장특성 및 경제동향

- (교역환경) 중미시장 진출 교두보이자 역내 최대 소비시장
 - 중미 6개국 중에서 최대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는 중미시장의 관문이자 테스트마켓임. 과테말라는 중미 전체 GDP의 28%, 총수입액의 25% 차지함
 - 과테말라의 경우 최종 서명에서 제외되었으나 파나마에서 FTA가 발효되면 한-중미 FTA 추가 가입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됨
 - 평균 관세율 2.7%의 높은 무역개방도를 갖춘 개방 시장이며, 중미공동시장(CACM) 회원국(5개국) 간 역내 원산지제품 무관세 교역 시행하고 있음. 또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지역 통합을 위해 노력 중임

- (사회환경) 치안 불안, 대미 의존, 빈곤 등 사회적 불안정성 내포
 - 과테말라를 비롯한 인근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은 모두 세계 최상위권 피살률을 기록하고 있어 치안 불안이 기업 활동 및 경쟁력 저하의 주요인으로 지목됨. 다만, 최근 과테말라 및 엘살바도르의 강력 범죄가 점차 감소하며 개선되고 있는 상황
 - 교역 및 외환 유입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 특히 '22년 3월 Global Trade Atlas 통계에 따르면 대미의존도는 수출 25.96%, 수입 34.49%에 달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가족 송금액은 '22년 GDP의 18.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 (투자환경) 정부·산업계의 수출·임가공업 경공업 진흥정책 지속
 - 봉제업(임가공)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 주력업종이며, 미국·인근 시장의 생산기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진출 미국 기업들이 생산거점 이동을 고려할 경우, 미국과 근접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금융 시스템을 갖춘 과테말라도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전망. 다만, 투자자들을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 인프라 개선, 세제 혜택 제공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

□ 과테말라 교역동향

- 과테말라 교역액은 수출입 모두 '1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17년 들어 다시 8%대의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음. 2022년 5월 코로나 사태가 회복세에 들어감에 따라 건설산업과 섬유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수출입동향>

구 분	2018	2019	2020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백만U\$)	10,993	10,769	11,514	6.9
수 입(백만U\$)	18,388	19,699	18,207	-7.6
교역수지(백만U\$)	-7,395	-8,930	-6,693	-25.05

* 자료원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이하 상동)

- 과테말라 통계청 최근 데이터인 2020년 기준, 국별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미국(34%), 중국(15%), 멕시코(11%) 등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중미공동시장(CACM) 회원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은 11% 차지
- 인접한 FTA체결국(미국, 멕시코 등), 중미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역내국들을 제외하고는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등 제조 강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많은 편이나, 대한 수입은 근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국별 수입규모>

순위	국 가	연도별 수입액(백만U\$)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1	미국	7,451	7,015	5,572	38.05	35.36	30.61	-20.6
2	중국	2,210	2,699	3,141	11.29	13.61	17.25	16.4
3	멕시코	2,113	2,190	2,133	10.79	11.04	11.72	-2.6
4	엘살바도르	983	923	744	5.02	4.65	4.09	-19.4
5	코스타리카	646	607	565	3.30	3.06	3.11	-6.9

순위	국 가	연도별 수입액(백만U\$)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6	일본	293	368	453	1.49	1.85	2.49	23.1
7	콜롬비아	490	559	389	2.50	2.82	2.14	-30.4
8	온두라스	392	402	366	2.00	2.02	2.01	-9.0
9	독일	301	384	364	1.54	1.94	2.00	-5.2
10	브라질	296	306	339	1.51	1.54	1.86	10.8
13	대한민국	285	307	305	1.46	1.55	1.67	-0.7
총계		18,388	19,699	18,207	100.00	100.00	100.00	-7.6

* 자료원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이하 상동)

- 수입대상국 별로 품목이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화석 연료 수입에 약 38%가 집중되어 있으며 휴대전화·곡물·자동차 등이 그 뒤를 차지함. 중국에서는 예년과는 다르게 철강 수입이 감소하고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기기와 타이어, 오토바이 등 다양한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의 수입은 전기·의약품·중간재에 집중되어 있는 편임

<2020 주요 수입 품목 >

순위	품목	HS Code	수입액(백만\$)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1	석유화학제품	2710	1,631	11.82	-34.3
2	휴대전화	8517	711	8.58	-5.2
3	의약품	3004	573	3.77	3.2
4	승용차	8703	412	2.26	-13.4
5	화물차	1005	356	1.96	11.8
6	옥수수	8704	307	1.69	-13.4
7	조제식품	2106	268	1.47	3.9
8	천연가스	4804	232	1.27	-11.9
9	판지	2711	228	1.25	-34.3
10	살충제/살균제	3808	215	1.18	3.2
총계			18,207	100	-8.4

* 자료원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22.5)

- 과테말라 수출국은 DR-CAFTA에 힘입어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35.7%), 이어 중미 역내시장(31.5%), 멕시코(4.7%) 등 인근시장에 집중
- 수출 품목은 농산물과 의복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5대 상위 품목 모두 농산물이 차지. 주력 수출 품목인 의류는 '18년 니카라과 정치 불안정

사태 장기화로 오더 물량이 몰려 반사이익을 얻었으나 '19년에는 감소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국별 수출규모>

순위	국 가	연도별 수출액(백만U\$)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1	미국	3,815	3,604	3,479	35.43	32.74	30.20	-3.5
2	엘살바도르	1,306	1,377	1,314	12.13	12.51	11.41	-4.6
3	온두라스	831	995	1,024	7.72	9.04	8.88	2.9
4	니카라과	558	539	662	5.19	4.90	5.75	22.8
5	멕시코	516	526	461	4.79	4.78	4.00	-12.4
6	코스타리카	430	430	448	3.99	3.91	3.89	4.2
7	네덜란드	364	326	342	3.38	2.96	2.97	4.9
8	사우디아라비아	99	181	317	0.92	1.64	2.76	75.1
9	중국	43	189	239	0.40	1.69	2.07	26.2
10	UAE	86	146	239	0.80	1.31	2.07	63.4
21	대한민국	69	46	85	0.64	0.42	0.74	84.8
총계		10,993	10,769	11,514	100.00	100.00	100.00	6.9

* 자료원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2.5)

<2020 주요 수출 품목 >

순위	품목	HS Code	수출액 (백만\$)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1	넛맥, 메이스, 카르다몸 등	0908	1,135	15.56	36.1
2	바나나	0803	930	10.62	-1.4
3	커피	0901	652	5.66	36.1
4	사탕수수당	1701	577	5.01	-13.5
5	팜유	1511	472	4.10	19.2
6	합금철	7202	321	2.79	16.7
7	남성용셔츠	6105	280	2.43	-7.5
8	저지, 풀오버	6110	271	2.35	-7.5
9	의약품	3004	259	2.25	12.1
10	여성 블라우스	6106	239	2.08	-7.5
총계			11,514	100.00	3.1

* 자료원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2.5)

III. 한국과의 교역동향

□ 한국의 대과테말라 교역동향

- 과테말라의 대한수입액은 '22년 4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세(22.8%)를 보이고 있음. 코로나로 인한 위축 심리가 완화됨에 따라 건설 산업과 섬유산업이 재개되며 해당 업종 품목의 수출이 증가함

<<최근 3년간 한국-과테말라 간 교역 현황>> (단위 : 천불, %)

구 분	2020	2021	2022.4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한국 對과테말라 수출	203,302	383,922	94,670	22.8
한국 對과테말라 수입	78,049	138,280	35,605	22.6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이하 상동)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동차, 봉제부자재(면사·합성섬유·염료), 기계류 등 내구재와 산업재에 집중되어 있음. 자동차, 가전 등 전통적 강세품목의 한국산 선호도는 꾸준하나, 중국·멕시코 등 경쟁국의 시장점유율도 지속 증가 추세임
 - 승용차의 경우, 매년 수입물량은 18~19만대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신차와 중고차별로 주요 수입국가가 변하는 양상을 보여줌. 이는 글로벌 메이커들이 아시아 및 중남미에서 생산공장을 다변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임.
- 2022년 4월 기준 소비자의 소득 감소로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요는 감소함.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됨에 따라 對과테말라 건설 중장비 수출이 증가했으며, 섬유산업의 재개로 면사 수출 및 섬유 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음. 궤련 담배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한국 담배 제품의 시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2년 4월 한-과테말라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천불, %)

순위	한국 對과테말라 수출			한국 對과테말라 수입		
	품목명(HS)	금 액	증감률	품목명(HS)	금 액	증감률
1	승용차(8703)	10,875	-10.1	커피(0901)	15,530	65.2
2	화물차(8704)	6,589	-22.2	구리스크랩(7404)	5,678	49.6
3	합성유기착색제(3204)	4,875	1.4	니켈광과 그정광(2604)	4,115	0.0
4	건설 중장비(8429)	4,085	154.0	알루미늄스크랩(7602)	2,950	73.2
5	프로필렌(3902)	3,838	77.9	티셔츠(6109)	1,617	91.3
6	면사 85/100 미만(5206)	3,651	351.8	전기전자스크랩(8549)	1,563	0.0
7	염료(3809)	3,088	55.1	바나나(0803)	1,393	-65.4
8	면사 85/100 이상(5205)	2,885	283.2	철스크랩(7204)	752	2,640.8
9	귤련 담배(2402)	2,658	352.0	파종용종자(1209)	702	36.3
10	에틸렌 중합체(3901)	2,591	104.7	저지,풀오버(6110)	430	314.2

* 출처 : 무역협회

□ 한국의 대과테말라 투자현황

- 봉제업종과 관련된 중·소규모 임가공업체가 주종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지사를 설립, 운영 중
- 과테말라 섬유산업협회(VESTEX)에 따르면 봉제, 부자재, 방직·편직·직조, 무역 등 총 120여 개의 한국기업이 회원사로 등록, 활동 중임
-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과테말라 직접투자 신고 건수는 '89년 37건, '00년 1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복, 섬유제품)이 대부분을 차지(법인 수 86%, 투자금액 84%)

<한국의 대과테말라 투자현황('80-'20.6년 누계) 단위: 천불>

업종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건설업	9	96.35	60.65
도매 및 소매업	6	15.51	13.98
부동산업	3	3.6	3.1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	0.90	-
숙박 및 음식점업	6	1	0.70
제조업	267	723.33	419.3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	1	0.31
기타 제품 제조업	4	4.1	2.4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	10.23	0.78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 제품 제조업	2	10.23	0.78
기타 식물제품 제조업	1	0.01	0.01
날염 가공업	1	0.50	0.05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	3.01	2.86
편조원단 제조업	3	9.45	9.35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0	36.08	15.0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	0.74	0.69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6	354.61	217.3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6	3.18	2.6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0.06	0.02
총합계	95	270	166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1년 5월)

IV. 현지 체류정보

1. 입국 요령

□ 입국 심사

- 한-과테말라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90일간 무비자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며, 1회에 한해 90일 연장 가능. 비자 연장은 과테말라시티 Zona4에 위치한 이민국(Direccion General de Migracion)에 방문하여 당일 조치 가능
- 기내에서 배포하는 입국신고서 중 1부(흰색)는 입국 심사 시에, 다른 1부(노란색)는 세관 검사 시 회수하므로, 마지막 세관 통과까지 소지 필요
- 특히, 짐표(Luggage Tag)는 수화물 도난 예방조치로 공항직원이 육안 확인 후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함

□ 코로나19 특이사항

- 코로나19로 과테말라 민간항공청(DGAC)이 각 항공사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입국자들은 72시간 이내 PCR 검사결과지(휴대필요) 혹은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테말라 보건복지부 관리하에 14일간 격리(Cuarentena)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입국 시 PCR 검사결과와 함께 별도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없이 바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함

□ 세관 검사

- 전반적으로 세관심사가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짐이 많거나 박스포장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입국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녹색등은 면제, 적색 점등 시 엑스레이 검사하는 무작위 선별 형태로 세관 시스템 변경

- 과거 대통령이 연루된 세관 비리 사건이 있어 세관검사를 엄격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참물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세관원이 내용물과 세관신고서 작성내용을 직접 대조하고 오류 발견 시 벌금을 물리거나 과세하기도 하므로 신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함
- 이를 대비하여 샘플은 반드시 인보이스와 함께 해당상품에 어떠한 형태로든 ‘Sample(서어 : Muestra)’임을 표기하는 것이 좋음

□ 1만 U\$ 이상 고액현금 소지 관련

- 합계금액 1만U\$ 이상의 현금과 유가증권(여행자수표, 상품권 등 포함) 지참 상태로 입출국 시 반드시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함
 - 과테말라는 미신고 고액현금 휴대를 자금세탁 범죄로 간주하며, 자금세탁 범 죄는 주재국에서 상당히 무거운 죄에 해당
 - 향후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체포는 물론 향후 수사와 공판 진행으로 인한 출 국금지, 보석금 납부, 변호사 선임 등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 공항 출국장(대합실)

- 세관 검사장을 지나면 외부인의 출입이 일부 제한된 홀이 나오며, 이곳에 공 항택시, 렌터카 부스 등이 위치함. 입국장 출구를 나서면 바로 주차장과 연결 되며 잡상인이 많은 관계로 차량 또는 사전에 약속된 안내인이 확인될 때까지 주의해야 함. 특히 출국장에서도 출구가 좌/우로 나뉘므로 사전에 어느 포인트에서 만날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

2. 날씨 및 복장

□ 현지 날씨

- 과테말라시티는 해발 1,500m 고원에 위치해 있어 연평균 20~22°C 내외의 상춘 기후 유지(한국의 5월 기후와 유사). 반면, 저지대 또는 해안가는 연중 내내 뜨겁고 무더운 열대성 기후
- 계절로는 크게 건기(12~4월)와 우기(5~11월)로 구분되며 통상 건기가 쾌적
 - 건기의 끝자락인 3~4월의 기온이 가장 높고(섭씨 30°C 내외까지도 상승) 우기로 들어서면서 다시 선선해지는 기후 특성을 보임
 - * 출처 : INSIVUMEH(Instituto Nacional de Sismologia Vulcanologia Meteorologia e Hidrologia)

☐ 복장

-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하복 또는 얇은 춘추복 위주로 준비하면 무난
 - 단, 해안가 또는 저지대 방문계획이 있는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여름옷을, 1~2월 방문 시에는 저녁이 몹시 쌀쌀해지기도 하므로 늦가을용 외투 지참
 - * 단, 저지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이 안전

3. 결제수단 및 환전

☐ 결제수단

- 미화는 외국인을 주로 상대하는 호텔, 관광업종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므로, 소액의 현지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좋음. 대개의 상점에서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등 주요 카드로 결제 가능하나 일시적인 통신장애가 발생하기도 함

☐ 환전

- 공항 내 환전소는 적용환율이 매우 불리하며, 따라서 호텔 데스크 또는 숙소 인근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환전 시 신분증(여권) 지참 필수)
 - * BI은행 현지화(케찰 또는 Quetzal) 매수환율('20.6.24) : 1 US\$ = 7.56 Quetzal

4. 기타 유의 및 참고사항

□ 교통편

- (일반) 대중교통체계가 낙후되어있고 버스는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가까운 거리라도 택시 이용이 바람직
 - 택시강도가 성행하므로 거리에서의 일반택시 탑승은 매우 위험하고 필히 콜택시, 호텔 택시 또는 우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최근에는 우버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관계로, 배정된 운전자의 이력을 살펴 운행 이력이 적거나 너무 최근부터 우버 운행을 시작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음
- * (콜택시업체) Amarillo Express(+502-2470-1515 또는 1766)
- (공항) 대개의 호텔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므로 공항↔호텔 간 이동 시에는 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
 - 그렇지 않은 경우 공항에 정식 등록된 조합택시(AirporTaxi)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택시부스는 세관 통관 후 입국장 출구 우측에 위치. 택시부스에서 목적지를 알려주면 금액이 기재된 티켓을 발급하며, 입국장 출구 정면에 대기 중인 흰색 택시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고 탑승하는 방식
 - * (요금) Zona 10(호텔존) 70케찰 전후, Zona 7(한인타운 인근) 100~120케찰 전후(미화는 택시부스에서 선결제하거나 탑승 전 택시기사와 상의 필요)
 - 밤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부스 상주직원이 없는 관계로 입국장에 대기 중인 공항택시에 바로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호텔에 미리 연락해 호텔 셔틀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치안

- 치안이 매우 불안하고 도심에서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절도·도난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야간 단독외출뿐 아니라 도심에서의 주간 단독보행 또한 금하는 것이 좋음
- * (사례) 시민의 왕래가 빈번한 오전 11시경 한인 여대생이 Zona10 변화가를 보행하던 중, 이면 주차 차량에서 권총 강도 2명이 하차, 현금·휴대폰

등을 강탈·도주

- 차량 이동의 경우에도 신호대기 또는 교통정체 중일 때가 가장 취약한데, 다인조 오토바이 강도가 차량 양옆으로 접근하여 총기 협박 후 갈취하는 방식이 일반적
- 따라서, 외출 시 과도한 현금이나 고급시계, 귀중품은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차량 내부에 있더라도 휴대전화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함
- 특히 총기 소지 및 이로 인한 사고가 일상화되어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강도의 요구에 절대 순응하고 반항하지 않아야 함

□ 자연재해

- 과테말라시티 주변에 활화산 3개가 있고 크고 작은 분출이 수시로 발생
 - 사까떼삐게스(Sacatepequez)주 안티구아(Antigua)시에 인접한 후에고(Fuego) 화산*이 '18년 6월 3일 크게 폭발, 쇄설류가 아랫마을을 덮쳐 최소 1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시티로 화산재가 확산되면서 La Aurora 국제공항 일시 폐쇄(당일 오후부터 익일 오전까지 유지)
 - * 과테말라시티에서 직선거리로 남서서 방향 약 40km 거리에 위치
- 또한 남서연안을 따라 카리브판과 코코스판이 만나는 단층대가 가로지르고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수시로 발생하며, 수도에서도 대다수의 주민이 인지할 정도의 흔들림이 자주 관찰
- 자연재해로 갑자기 공항이 폐쇄되어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들은 취소에 따른 변상이나 숙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출장 시 비상금이나 속옷 등을 여유 있게 챙기는 것이 좋음
 - 상황 발생 시 현지에서는 대체항공편 검색, 재발권이 매우 어려워지는바, 만약을 대비하여 24시간 대응이 수월한 여행사를 통해 발권하는 것이 안전
 - * 취항 항공사 대부분 예약 변경 접수가 콜센터로 일원화되어 있어 전화 폭증 시 신속한 대응이 잘 안 되는 편

□ 위생

- 수도물은 지하수 취수가 일반적이며, 정수설비 불량 및 도심 난개발로 수질 오염 우려가 있음. 특히 아메바 등 세균 오염, 석회질 함유 등의 이유로 음용에 부적합하며, 구강세척 및 양치를 하는 경우에도 병입 생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 대중음식점에서도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보다는 병입 생수를 마시는 것이 바람직

□ 팁문화

- (식당) 관례적으로 총금액의 10% 내외를 지불하며, 통상적으로 계산서에 이를 포함하여 청구하기도 하므로 확인 필요(명세서에 Propina로 표기)
- (호텔) 방청소 및 벨보이(포터) 팁은 1US\$ 또는 현지화 10케찰 내외가 적당

□ 무역관 오시는 길(Google 좌표 14.599035, -90.513176)

- 무역관은 Zona 10(제 10구역) 중심가에 위치한 ATLANTIS빌딩 6층에 입주해 있으며, WorldBank, 베네수엘라대사관, Maersk 등 주요기관, 기업들도 위치
 - 공항에서 출발할 경우 택시로 15~20분 소요되며, 공항택시(AirporTaxi) 기준 요금은 현지화 70케찰 수준(정액제)
- 주요 호텔*들이 무역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근처에 체류하는 경우 도보 방문도 가능하나, 보행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가급적 삼가는 것이 안전
 - * (1블럭) Real Intercontinental, Clarion Suite / (2-3블럭) Westin Camino Real, Holiday Inn 등

□ 기타

- (시간대) UTC -6:00 중앙아메리카 시간대에 편입되어 있고 일광절약시간제는 운영하지 않으며, 한국보다 15시간 늦음
 - * (예시) 한국 오전 9시 = 과테말라 전날 오후 6시
-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오전 8시 ~ 오후 5시가 보편적이거나 기업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관공서는 오전 8시 ~ 오후 4시 또는 오전 9 ~ 오후 5시, 은행은 지점에 따라 운영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
 - * Banco Industrial Fontabella지점 월-토 10:00-19:00 / Europlaza지점 월-금 09:00~18:00
- (전압) 이용전압은 110V·60Hz이며, 플러그는 A 또는 B형이 보급되어 있어 11자 형 변환 어댑터를 지참하는 것이 좋음
 - 현지 호텔에도 일정량을 비치해두고 있으나, 한국의 F형(220V용) 보다 구경이 작은 C형용 어댑터여서 삽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공휴일(2022년 기준)

날 짜	공휴일	날 짜	공휴일
1월 1일(토)	신 년	8월 15일(월)	성모 승천일
4월 4일(목)~4월 16일(토)	부활절(매년 변경)	9월 15일(목)	독립기념일
5월 2일(월)	노동절	10월 21일(금)	혁명기념일(1944년)
7월 1일(금)	국군의 날	11월 1일(화)	만성절(한식)

5. 주요 연락처

☐ 항공사·여행사

구 분	업체명	연락처	업체명	연락처
항공사	UNITED	(TEL) +502-2385-9610	AVIANCA	(TEL) +502-2470-8222
	DELTA	(TEL) +502-2302-5799	COPA	(TEL) +502-2385-5500
	AMERICAN	(TEL) +502-2278-7000	AEROMEXICO	(TEL) +1-800-835-0269
한 인 여행사	제트여행사	(TEL) +502-2383-4324 / (Email) jetexpressgua@yahoo.com		
	샬롬여행사	(TEL) +502-2439-7650 / (Email) shalomlingua@hanmail.net		
	하나투어	(TEL) +502-3042-6968 / (Email) shalomlingua@hanmail.net		

☐ 렌터카·콜택시

구 분	업체명	연락처
렌터카	HERTZ	(TEL) +502-2314-4444 (URL) www.rentautos.com.gt (특징) 공항 및 WESTIN호텔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있어 임차, 반납 등 이용 편리
	AVIS	(TEL) +502-2324-9000 (URL) www.avis.com.gt (특징) 공항 및 과테말라시티 중심가에 3개소가 있으며, Zero Deductible 등 폭넓은 옵션 제공
	스마일렌터카	(TEL) +502-2432-2468 / 4250-1803 (특징) 교포 운영 렌터카업체(중고차매매 겸업)
	현대렌터카	(TEL) +502-5353-1508 (특징) 교포 운영 렌터카업체(중고차매매 겸업)
콜택시	TAXI EXPRESS AMARILLO	(TEL) +502-2470-1515 (요금) 4.8케찰/km, 정차 시 33초 단위로 0.8케찰 가산(최저요금 : 현찰-25케찰, 카드-35케찰) (장거리요금) 안티구아 300케찰, 빨린 250케찰 등 (특징) 과테말라 최대 규모 콜택시기업(자회사로 Verde Express社 보유)

□ 비상연락망

○ 과테말라무역관

- (주소) 13Calle 3-40, Zona 10, Edificio Atlantis, Oficina 605, Guatemala
- (TEL) +502-2298-0000

직 위	성 명	연락처
관 장	심재상	csshim@kotra.or.kr (핸드폰) +502-4707-1983
스페셜리스트	장보람	mariachanghan@kotra.or.kr

○ 주과테말라 대한민국대사관

- (주소) 5Avenida 5-55, Zona14, Edificio Europlaza, Torre3, Nivel 7, Guatemala
- (TEL) +502-2382-4051 ~ 5 | (긴급전화) +502-3368-9333

○ 사건·사고 관련 주요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경찰청(범죄신고) Policia Nacional Civil	110 또는 120	앰불런스(의용) Bomberos Voluntarios	122
교통경찰(PMT) Policia Municipal de Transito	1551	앰불런스(국영) Bomberos IGSS	128
관광경찰 Policia de Turismo	+502-2361-605 2	앰불런스(시영) Bomberos Municipales	123
Roosevelt병원(국립)	+502-2321-740 0	앰불런스(민간) Alerta Medica	1711
Centro Medico병원(사립)	+502-2279-494 9	앰불런스(적십자) Cruz Roja	125

○ 한인 운영 클리닉

구 분	업체명	연락처
가정의학과	박상민클리닉	(주소) 36 Avenida 1-74, Centro Comercial Mateo Xpress Local 7, Zona 7 (TEL) +502-2439-8225 (운영시간) 월-금 09:30-18:30 / 토 09:30-14:00
치 과	미소치과	(주소) 32 Avenida 1-36, Utatlan1, Zona 7 (TEL) +502-2439-5445 (운영시간) 월-금 09:00-17:30 / 토 09:00-15:00

□ 주요식당

종류	상호명	연락처	비 고
한식	유명한집	(주소) 1 Calle 35-09, Zona 7 (TEL) +502-2433-9788	탕요리 전문
	한국관	(주소) 2 Calle 33-14, Zona 7, Calzada Mateo Flores (TEL) +502-2439-5927	숯불갈비 전문
	향 이	(주소) 2 Calle 33-40, Zona 7, Calz. Meteo Flores (TEL) +502-2233-7210	한 식
	중국집	(주소) 36 Avenida 1-59, Zona 7 (TEL) +502-2212-5639	한국식 중식
	명 동	(주소) 11 Calle 5-08, Zona 9 (TEL) +502-2441-5266	한식·중식 및 숯불갈비 전문
	순 풍	(주소) 32 Avenida 1-34, Zona 7 (TEL) +502-5577-7686	순대국 전문
	과테골	(주소) 46 calle 6-87 Zona 12 Col. Monte Maria 3 (TEL) +502-2477-2638	한 식
중식	Lai Lai	(주소) 12 Calle 5-27, Zona 9 (TEL) +502-2331-6507	정통 중식
	PF Chang	(주소) 12 Calle 2-25, Zona 10 (TEL) +502-2376-5400	미국식 중식
현지식	Hacienda Real	(주소) 5 Avenida 14-67, Zona 10 (TEL) +502-2380-8383	과테말라식 숯불구이 전문
	Donde Mikel	(주소) 6 Avenida 13-32, Zona 10 (TEL) +502-2363-3308	스페인식
	Palermo	(주소) 4 Avenida y 12 Calle, Plaza Fontabella, Zona 10 (TEL) +502-2336-7129	아르헨티나식 아사도 전문

6. 유용한 현지표현

- 안녕하십니까?(아침인사) - Buenos dias(부에노스 디아스)
- 안녕하십니까?(점심인사) - Buenas tardes(부에나스 따르데스)
- 안녕하십니까?(저녁인사) - Buenas noches (부에나스 노체스)
- 감사합니다. - Gracias (그라시아스)
- 실례합니다. - Con permiso (꼐 빠르미소)
- 계산서 주세요. - La cuenta, por favor (라 꾸엔따, 뽀르 파보르)
- 물 좀 주세요. - Agua, por favor (아구아, 뽀르 파보르)
- 얼마입니까? - Cuanto cuesta? (꾸안또 꾸에스타?)
- 메뉴 주세요 - La carta, por favor (라 까르따, 뽀르 파보르)

7. 주요 관광지



안티구아(Antigua)

- 1543년 스페인 침략기에 건설된 옛 수도로, 1773년 대지진으로 파괴되면서 현재의 과테말라시티로 이전
- 성당 등 주요 건축물들이 중세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197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 제1의 관광지로 자리매김
- 과테말라시티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



2. 아띠뜰란호수(Lago de Atitlán)

- 과테말라시티에서 147km, 해발 1,562m에 위치한 칼데라호
- 3,000m 이상의 화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체계바라가 풍경에 반해 혁명을 잊고 머물렀다 하여 유명세를 탄 곳
- 특히 호수 주변 부락을 배로 이동하며 인디오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음



3. 띠깔(Tikal)

- 과테말라 북쪽 빠뎡(Peten)주에 위치한 마야유적지로 197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 유적지는 3천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건조물로 구성
- 버스로는 12~14시간, 항공편으로는 1시간 소요



4. 빠까야화산(Volcan de Pacaya)

- 해발 2,562m의 활화산으로, 경우에 따라 흐르는 용암을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
- 등반에는 2시간 정도 소요되며 말을 타고 등산도 가능
- 과테말라시티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



5. 리오둘세(Río Dulce)

- 과테말라 북쪽 이사발(Izabal) 호수 인근에 위치, 천혜의 원시림과 자연풍경을 간직한 관광명소
- 이사발호수, 산펠리페성, 흑인정착촌인 리빙스톤 등이 주변의 주요 관광지임

V. 상담 시 참고사항

□ 과테말라 상거래 참고사항

1) 상담/계약 체결 시

- 제조업이 GDP의 18%를 차지하나 섬유봉제업, 플라스틱제조, 식품가공업 등에 편중되어 있고, 따라서 기타 소비재, 자본재, 원부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임. 다만, 수입상들은 비즈니스 초기단계에서 시장조사, 소비자 기호파악 등을 위한 소량구매가 일반적인 만큼, 처음에는 바이어가 원하는 소량 오더를 수용하되, 향후 설득을 통해 거래량을 키워가겠다는 자세가 바람직
- 과테말라의 많은 업체는 금융비용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L/C 개설을 회피하며 T/T 거래를 선호(선금 30%, 선적 후 70% 등). 이 경우, T/T 송금 후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에 Commercial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의 서류를 보내야 하며, L/C 거래 시 과테말라 은행의 대외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미국 소재 외국은행을 통한 CONFIRMED L/C 개설이 안전
- 중미지역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과테말라의 많은 수입업체는 인근 중미국에도 판매장이나 거래선을 두고 있으며, 과테말라에서 시장성이 있는 제품은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과테말라를 기점으로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시장을 점진적으로 공략한다는 자세가 필요
 - 다만, 과테말라 바이어들은 과거 스페인 독립 직후 중미연방의 수도였던 관계로 중미지역의 말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인접 국가와는 심적으로 가까이 지내나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경우가 있음
- 과테말라는 전체인구의 53.7%가 빈곤층(극빈층 11.5%)으로 구성, 중산층이 취약하고 소득불균형에 따른 소비구조 양극화가 특징임. 이에 소수의 상류층과 다수의 서민층을 따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함. 다만, 상류층의 경우도 한국

입장에서 당연하게 생각되는 친환경, 고품질 추구 등의 가치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품목별로 현지 소비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

- 과테말라는 전체인구의 40%가 마야 후손 원주민(인디오)이며, 혼혈(라디노), 백인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면적으로는 인종 간 갈등이 표출되지 않지만, 인디오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인종에 대한 질문 혹은 코멘트(‘당신이 (순수) 백인이냐, 혼혈이냐, 인디오냐, 마야인이냐’ ‘과테말라의 인종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등)는 삼가야 함

2) 상담 이후 후속조치 시

-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상담 약속이나 거래 추진을 원치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약속 시간을 변경하거나 혹은 “나중에 보자”, “담당자가 없다”라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어의 진의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
- 중미지역 기업들은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오너 또는 의사 결정권자 집단과 실무자 집단 간 의사소통이 사실상 단절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대부분의 의사 결정이 오너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이 휴가 또는 출장으로 자리에 없는 시간이 많아 즉시 응답을 하지 못하거나 실무자가 이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과테말라 바이어들은 이메일 또는 전화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에 본인이 급하지 않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김. 이에, 사절단 이후 교신 시에는 무역관 담당자를 참조하여 무역관 직원이 별도로 접촉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